

상록탑

몰카, 그 비겁한 호기심

‘미스터 K’(범인이 사용한 가명)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한 여성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국내 워터파크를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자신에게 넘겨라는 것. 여성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 여성들의 나체가 담긴 185분짜리 몰카(몰래카메라)는 미스터 K에게 전달됐다.



윤다솜 편집부국장

서울시 관악구의 한 원룸 집주인 아들 A씨. 그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원룸에 사는 한 여대생의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선 USB가 달린 소형카메라를 그녀의 책상 아래 설치하고 유유히 방을 빠져나왔다.

경찰에 체포된 미스터 K와 A씨의 범행 동기는 간단했다. 단지 여성들이, 그녀들의 생활이 궁금했었다. 미스터 K의 대리인 노릇을 했던 여성도 마찬가지였다.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몰카가 기승이다. 공공장소부터 원룸과 같은 사적인 공간까지. 도대체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지난 1일에는 철도역·지하철 등을 돌며 여성 약 300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성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몰카만 찾아다니는 수도 없는 노릇이니 눈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최첨단 시대다.

문제는 몰카 범인들의 범행 동기가 매우

“**강력한 사회적 합의 있을 때 몰카 범죄 근절 가능해**”

단순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호기심과 한 순간의 몰욕(物慾)이 몰카 속 당사자의 인권을 순식간에 유린한다. 호기심과 피해자 인권을 너무나도 쉽게 맞바꾸는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 영상을 공유하고 가십거리로 전락시킨다.

또 다른 문제는 범죄 의식의 부재다. 몰카 범인들은 하나 같이 몰카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다고 토로한다. 문제의식이 무뎠던 이들에게 폭력이란 물리적 폭력에 국한하는 듯하다. 범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물리적 폭력보다 무서운 것은 피해자, 나아가 그들의 주변인에게까지 트라우

마를 남길 수 있는 교묘하고 악랄한 정신적 폭력이라는 것을. 그 중 몰카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가장 무서운 폭력이라는 것을 말이다.

본교도 몰카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본지 1441호(2012년 12월3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본교 수영장에 등록된 한 남성은 2개월 간 수영장 창문, 환풍기 통로를 통해 몰래 수영장 이용객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176장의 여성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

이처럼 몰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집에는 몇시에 돌아가는지가 또 다른 미스터 K의 렌즈를 통해 기록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몰카 범죄는 사회적으로 강경한 합의책이 마련돼야 근절할 수 있다. 강력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몰카 판매 사이트 집중 단속, 범인 신상공개 등이 선행돼야한다. 포털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몰카 사진·영상 등의 불법 유출을 점검하고 의심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포털 이용자 또한 해당 콘텐츠 유포를 자제하고, 의심 사이트가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2, 제3의 미스터 K가 더 이상 호기심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지 않길 바란다. 관심이 라는 이유로 카메라 뒤에 숨지 마라.

사설

학생과 함께 진정한 A등급으로 거듭나길

교육부에서 약 5개월간 대대적으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8월 31일 발표됐다. 이번 평가에서 본교는 A등급을 받으면서 학교 본부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본교를 포함한 전국 34개 대학이 강제 인원 감축에서 자유로워 졌으며, 나머지 대학은 최대 15% 강제 인원 감축이라는 쓴맛을 봐야 했다(일 반대 기준).

그런데 이러한 좋은 평가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대학가는 강제 인원 감축과 장학금 축소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교육부의 평가 기준에 맞게 학교를 바꾸나갔다. 절대평가를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인원을 감축했으며 취업에 특화된 단과대학(단체)을 신설했다.

본교도 마냥 피해갈 수만은 없는 비판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1490호(2015년 3월9일자)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등 사회적 추세에 맞는 융합적 교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신산업융합대학을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해 "취업률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조형예술대학과 음악대학의 정원이 감축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으나, 학생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제47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학제 개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47대 총학생회 '이화답게'는 '신산업 융합대학 설립 재논의'를 공약으로 내놴다. 현재 적극적인 움직임은 찾아볼 없지만 여전히 학내 구조개편에 대한 학생 사회의 여론은 냉담하기만 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부의 평가 기준에 맞춘 변화가 아닌,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심분 반영하는 것이다. 취업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는 대학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민감한 이슈 앞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소통하지 않는 학교를 향한 비판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본교가 이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것은 다행인 일이다. 하지만 지표상의 평가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을 위해 정말 필요한 혁신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학교는 소통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통해 학내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제야 비로소 본교가 대내·외적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A등급'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칼럼

중도 열람실 이용제한, 목적없는 '효율적' 운영

8월24일,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는 논란의 공지사항 하나가 붙었다. 공지의 요지는 앞으로 중앙도서관 자유열람실을 24:00~05:00의 심야 시간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순식간에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찬반논쟁에 부쳐졌지만 여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학교는 이에 대해 다시 장문의 설명의 공지를 덧붙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의 이유에 대한 학교의 답변은 "그동안의 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심야시간대 이용자가 매우 적은 시험기간 이외에 대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유가함 사회13

“**효율적 운영보다 학문적 가치 중시해야**”

시 말해 학교 측에서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용할 때 심야 개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소수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나 많은 수의 학생의 의견에 따르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결코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심야시간을 이용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 중앙도서관조차 학습공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학생들은 말 그대로 '갈 곳'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자유열람실 심야개방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PC실, 라운지, 노트북실 대체 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이다. 자유열람실과 PC실, 라운지, 노트북실은 기본적으로 공간의 목적이 다른 공간이다. 물론 현재 라운지가 자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라운지는 휴식과 공부할 함께 하는 개념으로 설계된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PC실과 노트북실은 데스크톱과 노트북을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소음 등으로 자습에 적절하지 않다. 책을 읽고 필기를 하는 '자습'을 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에 온 학생들에게 PC실, 라운지, 노트북실에서 공부하라는 것은 공간의 용도를 고려하지 못한 대안이다.

이 사회에는 효율성으로만 판단될 수 없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1000명이 사는 한 마을에 장애인 1명 있다면, 그 마을의 편의시설과 교통수단에는 장애인 시설이 구비돼야 한다. 이에 대해 그 사람에게 "그게 더 효율적이니 다른 걸 이용해라"라거나 "집에 있으라"는 것은 폭력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의 모든 일들이 원칙대로 선한 목적에 따라서만 선택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효율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대학교에는 자본주의적 '효율성'보다는 학생이 밤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 됐으면 한다. 이화는 지금까지 그러한 대학으로서의 가치를 좇아왔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점이 자랑스러운 '이화인'이었기 때문이다.

만평 박소라 만평기자 parksola94@gmail.com



금주의 책



도시를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지음, 서울: 을유문화사, 2015. 도시를 건축물이 모여진 공간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겨진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읽어내는 책입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보여줍니다. 저자는 서울의 정겨운 골목길부터 뉴욕의 센트럴파크까지 도시 안에 숨은 명소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 강북의 도로는 왜 구불구불한지 등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 할 수 있는 도시와 건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온 익숙한 주변을 돌아보고, 건축물과 도시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 인기도서 / 3층 일반자료실 307.76 유94c]

여론광장

손을 펴자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갖고 싶어 한다. 범정스님도 그랬다. 난초를 키우던 범정스님은 난초에 온갖 정성을 쏟았고 집념을 가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난초를 소유한다는 건 얽매임이라는 걸 깨달았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물건이 결국에는 얽매임이 된다는 걸 알고 그 뒤로는 '무소유'를 실천한 것이다.

나도 요즘 이걸 느낀다. 물건만이 아니다. 우스꽝스럽게도 나는 젊음에 집착하고 있었다. 친구들 중 결혼하는 친구들도 생겼고 취직하는 친구들도 생겼다. 예전부터 어른

들이 지금이 좋을 때라고, 결혼하고 취직하면 그 때가 좋다는 걸 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벌써 좋을 때를 다 지난 나이가 된 것인가'하고 심란해하고 있었다.

나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고, 지금처럼 어리고 싱그러운 시간들을 영원히 잡고 싶었다. 작년까지 해도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 때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서인지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의 나는 너무 급급해진다. '지금 많은 걸 보고 경험하고 다 해봐야

해'라는 강박관념 같은 것. 그것은 집념이었고 얽매임이었다. 젊음에 대한 집착, 젊음을 영원히 잡고 있고 싶은 소유욕. 그러니까 이 순간도 제대로 즐기고 있지 못한 것 같았다.

이걸 깨닫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가지'라는 생각에 갇혀서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날아가 버릴 것이 두려워서 현재 내 곁에 있는 것들에도 집중하지 못한 건,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깝다. 이제는 꼭 쥐고 있던 손을 펴고, 다가오는 것들이 내 손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온전히 그것만 집중해야겠다. 손을 펴자! 임효정(경영12)

0805~0903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대하역사만화	박시백	휴머니스트	2005-2013
2	버림 받은 황비: 정유나 장편소설	정유나	D&C books : 디앤씨미디어	2013-2015
3	아리랑: 趙廷來 大河小說 제2판	조정래	해냄	2004
4	신과 함께: 저승편	주호민	애니북스	2011
5	(만화) 토지	박경리	마로니에북스	2015
6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방송공사, 한국어연구회, 한국방송공사, 한국어진흥원	넥서스 : 형설출판사	2006-
7	신과 함께: 신화편	주호민	애니북스	2012
8	로마인 이야기	염아칠생	한길사 : 한길사	1995-2007
9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Rowling, J. K.	문학수첩	2007
10	룬의 아이들, 2부, 데모니	전민희	제우미디어	2003-2006
11	고구려: 김진명 역사소설	김진명	새움출판사	2011-2013
12	(Hackers) 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 reading 2	해커스어학연구소	해커스어학연구소	2011
13	(健甞君主) 강희대제 : 二月河 大河歷史小說	이월하	산수야	2005
14	1Q84: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촌상춘수	문학동네	2009-2010